

# “말의 삶 통해 인간사 들여다본 어른 동화”

문화전당 지역협업 연극 ‘홀스토포머’ 출연·연출 유인촌



“지역배우들과 소통·협업으로 새로운 작품 만들어 보고 싶어”

오디션 참관차 광주 찾아  
8월부터 지역배우들과 함께 연습  
9월 9일~11일 예술극장 공연

“긴장될 뉘시죠? 오디션이라는 게 습관이 안되면 불편해요. 작은 축제라고 생각하고 즐기시길 바라요. 오디션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뽑는 게 아니에요. 작품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사정 없이’ 하세요. 자기 것을 확실하게 내놓으세요.”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예술극장. 연극 배우 유인촌(65)은 편안한 목소리로 젊은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국립극단 ‘햄릿’ 타이틀 롤을 맡아 연습에 한창인 그는 오는 9월(9~11일)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홀스토포머’ 배우 오디션 참관을 위해 광주를 찾았다. 1997년 유씨가 초연한 ‘홀스토포머’는 올해 20주년을 맞았으며 전당 지역 협력 공연작이기도 하다. 이번 오디션은 지역민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유씨는 이번 작품에 연출자로, 배우로 함께한다.

“‘홀스토포머’는 문학성과 연극적 매력에 뛰어난 작품이다. 현대인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고 개인적으로 아끼는 작품이기도하다. 원래는 초청 형식이였다. 서울팀이 공연하고 가면 간단하지만, 지역에 뭔가 역할을 해야한다 하지만 지역 연극인, 스태프 등과 같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지역과 협업하는 첫 케이스라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기대도 많다. 문화전당 첫 삼을 뜰 때 왔고 전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예술의 전당보다 큰 공간인데 좋은 공간에 좋은 콘텐츠가 채워질 거라 본다.”

이번 오디션에는 모두 32명이 참여했다. 출연배우는 서울 배우를 포함, 22명이지만 적임자가 있으면 더 뽑아 트레이닝을 시킬 생각이다.

“지역 한계를 넘어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싶다. 오디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그들과 많은 걸 나눌 것이다. 서울 공연과는 또 다르게 전당이라는 공간에 맞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내가 직접 무대를 봐보면서 환경에 맞는 작품을 만들겠다. 배우들은 한번 작업을 하면 헤어지기 힘들다. 6주간 땀흘려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다. 이번 작품 이후에도 함께 한 배우들과 계속 작업할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홀스토포머 소설을 각색한 ‘홀스토포머’는 촉망받는 배우가 되었으나 지금은 병든 말 ‘홀스토포머’의 입을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는 음악극이다.

“다른 말과 달리 ‘얼룩말’로 태어나 천대받던 주인공의 삶을 통해 우리 인간사를 들여다본 ‘어른 동화’다.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연극 대사 중 ‘인간은 자기 땅이라고 부르면서 한번도 밟아보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사람이라 부르면서 해를 끼치는 경우도 봤다’는 대목이 있다. 인간 속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데, 그게 무척내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돌아보며 미소짓게 만드는 작품이다. 고통,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하지만 수송 자국 같은 상처는 그렇지 않다. 잊어버리고 있다해도 어느날 문득 들여다 보면 남아 있는 상처처럼 잊지 못할 이야기를 전하는 작품이다.”

유씨는 공작에서 물러난 후 강원도 폐교에 공연장을 만드는 등 지역 문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2년 간 부안 등 소도시 문화관에서 연극을 올리기도 했다. ‘파우스트’ 등 무거운 작품을 공연했는데 문예회관 직원들이 다 반대하더라. 핸드폰 울리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등 관람 환경이 엉망이고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다. 트로트 공연 같은 거나 된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 연극 관람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서울 관객보다 더 집중해 보더라. 기립박수도 받았다. 관객을 감동시키는 건 결국 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역량과 역할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는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말이 주인공이라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고 그만큼 배우 훈련도 많이 필요하다. ‘햄릿’ 역을 6번째 맡았는데 매년 연기할 때마다 다 다른 기분이다. 배우, 무대, 연출, 관객과 만나는 지점에 따라 동일 작품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존 작품과 다른 ‘홀스토포머’를 만들겠다. 실망하지 않을 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홀스토포머’ 오디션 현장

고등학생부터 기성 배우까지 32명 노래·연기·춤 3박자 열띤 경연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틀리에에서 진행된 음악극 ‘홀스토포머’ 오디션 현장은 열기가 가득했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오디션에는 고등학생부터 기성 배우까지 32명이 참여했다. 심사는 음악감독 조선아, 안무가 이복선씨 등이 맡았다.

‘홀스토포머’는 음악극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연기, 노래, 춤 3박자를 갖춰야한다. 오디션 역시 연기, 노래, 움직임 등 두루 살피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오디션 시작 전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본 안무를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던 진소연(23·호남대 4년)씨는 뮤지컬 ‘빨래’ 삽입곡과 연극 ‘한여름 밤의 꿈’의 한 대목을 선보였다.

진씨는 “전당에서 음향 크루로 일하면서 나도 이런 훌륭한 공간에서 공연되는 멋진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참여 동기를 밝혔다. 서울에서 활동하다 2년전 나주에 내려와 예술감사와 배우로 뛰고 있는 김옥경(33)씨는 탄탄한 기본기를 선보였다. 김씨는 “좋은 작품에 대한 갈증이 커 오디션에 참여하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홀스토포머’ 오디션에 참가한 지역 배우들이 심사 전 안무를 연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를 비롯해 이번 오디션에는 연극 ‘전우치’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들도 여러명 눈에 띄었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25일부터 연습에 들어간 후 9월9일~11일 예술극장 무대에 선다. /김미은기자 mekim@

# 달빛동맹 광주·대구 예술교류제

광주예총 주최...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 창작무용 ‘주여, 임하소서’

영호남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를 통해 교류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다.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주최·주관하는 2016달빛동맹 광주·대구 예술교류제가 1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오프닝 무대는 소리꾼 정주희(전남도립국악단원)씨가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어 (주)하늘다래예술단이 출연해 노래·무용·타악·신디사이저 등이 어우러진 퓨전전남타 ‘대동한마당’을 선보인다.

대구에서는 바리톤 이인철, 소프라노

이윤경씨가 오페라 ‘백베스’, ‘세빌리아의 이발사’ 삽입곡을 들려주며 장유경무용단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배경 삼아 ‘부채춤-바흐(대구 광주 달빛동맹을 위한)’을 선보인다. 또 계명대 ‘CHOI댄스컴퍼니’가 창작무용 ‘encourage’를 공연한다.

광주에서는 김미숙부리한국무용단이 창작무용 ‘주여, 임하소서’를 무대에 올리며 빅밴드 싱어즈가 비제의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등을 선사한다. 피날레 무대는 박수용 재즈 콰르텟이다. 전석 무료. 문의 010-6381-268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이우환 “경찰이 4점 위작으로 하자고 해”

“13점 모두 틀림 없는 내 그림”... 기존 입장 재확인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80)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작 논란이 제기된 13점의 그림에 대해 “틀림없는 제 그림”이라며 이 작품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화백은 특히 자신이 전부 진작이라고 감정하지 경찰이 “13점 중 4작만 위작으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 화백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만의 호흡, 리듬, 색채로 그린 작품으로서 작가인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 틀림없는 저의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 출석 후 위작 논란이 제기된 작품에 대해 ‘진품’이라고 밝힌 그는 하루 전 경찰에 처음 출석했을 당시 작품을 보고 곧바로 자신이 그린 진작임을 알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한번 더 경찰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처음에는 전부 위작이라고 하더니 (내가 모두 진품이라고 하자) 변호사를 내보내고

“그러면 4점만 위작으로 하고 나머지는 진작으로 합시다”라며 때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화백은 경찰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이 화백은 “경찰은 자격이 불확실한 감정위원과 국과수에 먼저 감정을 의뢰하고 제가 확인하기도 전에 감정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ECO

www.yhb.co.kr

**YHB 전기 집진기** | 생활주변 지긋지긋한 연기, 냄새를 전기집진기가 확 제거해 드립니다.

직화구이 연기, 냄새,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연기흡입 → 청정공기배출

10분에 1번 자동 에어세척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  
주요보 발령/대기오염 규제  
실 대응 해결책!!

직화구이 연기, 냄새 제거 95%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광주영업소 **무등산업**  
T.062)371-7095 F.062)375-3409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광산구 하남신당7번로 7(오선동) ☎062-952-6633 **인산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1(용정동)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shh@yhb.co.kr / eco6400@hanmail.net

# 광주·전남 프리모 남가발

대산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가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기든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신제품 **59만원**~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NAVER 주스(주)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